

# 강진한우, 우수 유전력 높여 농가소득기반 극대화 박차

### 100농가, 1,500두, 1억3,500만원 투자해 유전체 검사 실시 최근 3년간 4,200두 컨설팅 실시, 우량암소 집중 육성 노력

강진군이 강진안도축협과 한국종축개발협회와 함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연계한 한우 유전체 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급육 생산 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강진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본격적인 질주에 나섰다.

한우 유전체 검사는 송아지 및 암소의 DNA를 분석해 육질등급, 성장능력 등 주요 유전 형질을 예측해 1++등급 도달 및 가능성 및 번식능력이 높은 우량 개체를 조기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저능력 개체는 조기 도태하거나 비육형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농장 경영에 반영하여 한우 개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책이다.

대부분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의 일부 사업비로만 유전체 검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강진군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자체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해 현재까지 최근 3년간 4천 2백두 한우 유전체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해 농가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에도 군비 8천 1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억 3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전체 검사 및 컨설팅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한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으뜸한우 및 으뜸송아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100농가, 1,500두를 선정해 모근(꼬리털) 시료를 채취하고 개체별 유전능력 분석 결과를 농가가 쉽게 이해하고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을 방문하여 1:1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50두 규모의 한우를 사육 중인 A농가는 “그동안 경험과 감으로만 개체 선별을 했지만, 이제는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적 정확한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고급육 가능성이 낮은 개체를 일찍 판별해 관리비 부담도 줄고, 우수 개체는 더 집중 관리할 수 있어 효용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유전체 검사를 접한 B농가는 “처음엔 어렵고 복잡할 줄 알았는데 컨설팅을 함께 받으니까 이해가 쉬웠고, 내 한우가 어떻게 성장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사육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검사결과를 활용해 판매한 송아지 가격도 잘 받아 실제 효과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 유전체 검사와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급육 중심의

생산체계를 정착시켜 농가 소득 향상과 강진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전국 브랜드로 육성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고급육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맞춤형 한우 개량, 등급 향상 기자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 결과 한우 도체 성적이 해마다 증가하여 7월 기준 도축 한우 4,870두 중 1등급 이상 판정받은 한우는 3,708두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76.1%로 확인됐다. 강진/손경설 기자



## 곡성군, 치유농장 육성 위해 치유농업 선진지 견학 추진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 역량강화 벤치마킹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원과 치유농장에 관심있는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장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견학은 치유농업협의회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관내 치유농업 확산과 치유농장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치유농업사가 운영하는 전라북도 순창군 프레팜 치유농장을 첫 일정으로 치유농장 운영 기법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수강하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이후 전북 김제시 꽃다비팜을 방문하여 치유농장 현장견학과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실습수업을 진행했다.

순창군 프레팜과 김제 꽃다비팜은 6차산업인증, 농촌교육농장인증 등을

받아 지역 복지관,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농가 등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과 도시민이 교류하는 등 선진 치유농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해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교육생들이 치유프로그램 개발이나 치유농장 운영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자신의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곡성군에도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및 치유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유농업은 주민들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곡성/이정수 기자

## 2024년 영암군 생활인구 300만 넘었다

### 생활인구 통계, 8월 30만 넘어 축제 등 이벤트 효과 입증

2024년 영암군 생활인구가 300만명을 넘고, 8월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6/26일 공동 발표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를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지역 체류 통근자·관광객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현실 인구를 포괄하는 인구 개념인 셈이다.

발표된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암군 등록인구는 6만1,000여 명이고, 생활인구 유입은 그 3.5배가 이뤄져 303만

명 수준이었다.

특히, 4월 왕인문화축제 개최, 8월 월출산기찬랜드 운영, 10월 국화축제 기간을 전후로 생활인구가 집중 증가했다.

그중 8월 생활인구는 305,554명으로 등록인구의 4배에 달하는 최대치를 기록해 축제 등 지역 이벤트가 생활인구 유치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1, 2, 12월에는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었고, 12월 기준 생활인구는 24만 2,000명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이 통계가 생활인구 유입 구조가 축제·농업·관광 등 계절 요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연중 안정적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가보고 싶은, 머물고 싶은, 살고 싶



은 영암을 기치로 세운 ‘단계적 생활인구 전환 전략’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보고 싶은 영암’ 핵심 전략은 통계로 검증된 관광·축제 활성화이다. 영암군은 대표 축제인 영암왕인문화축제, 월출산국화축제, 지난해 첫 개최된 한옥문화비엔날레와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로 전

국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영암을 찾는 곳에서 머물고 살아보는 곳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연 생활인구 300만명을 기반으로 월 생활인구 50만을 달성하고, 이들이 정주인구로 살아가도록 인구정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 전남 영광군의 유일한 계곡 물놀이 명소인 대마 안골 계곡을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 개장한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군은 안골 계곡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피서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에도 안골 계곡에 평상, 화장실, 주차장,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갖춰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영광 유일의 계곡, 대마 안골 7월 19일 개장

### 올해는 의자까지 무료 대여, 발 담그며 ‘피서 심터’로 인기 예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의자’를 무료로 대여한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

공하고자 계곡 의자 대여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명소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별도의 준비 없이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대여받아 이용할 수 있어 방문

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마 안골 계곡은 주변 숲과 깨끗한 물로 유명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영광군은 이번 개장을 통해 무더운 여름, 도심 가까운 자연 속 피서지로서 안골 계곡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 장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문자 주의하세요”

### 안내문자 속 인터넷주소 ‘클릭’…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우려

장성군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 문자 메시지를 사칭해 휴대폰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스미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장성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인터넷주소, 링크 등이 포함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쿠폰 안내를 방지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 링크 등을 문자로 받았다면 즉시 지울 것”을 권장했다.

장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사회누리망(SNS)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알리고 읍면 마을별로 주민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 장성군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35만 원, 기초수급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국민·차상위·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는 2차 추가지급을 통해 10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카드·종이형) 중 선택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 모바일 앱, 카드사 연계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앱에서, 종이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다. 종이 상품권은 8월 초부터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기존 상품권과 유사하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매장이나 유흥업종, 귀금속업종, 온라인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성/황해연 기자

